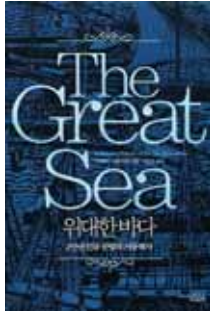


## 2만년 문명이 소용돌이친 '인간의 바다'



**'위대한 바다'**  
데이비드 이블라피아 지음

지중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로 안다면 상식적인 관심이 있는 거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탄생한 바다로 안다면 제법 안다고 볼 수 있다. 좀더 나아가 2만 년 유럽 문명이 굽이친 바다로 안다면 지중해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다.

지중해는 세 개의 대륙에 둘러싸여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한다. 대양에 비해 협소해 자칫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도 많다. 다행히 지브롤터 해협이 있어 이러한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점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세 개의 대륙으로 둘러싸인 만큼, 교역의 요충지가 될 수 있었다. 자연스레 문명의 교류로 이어지고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무역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지중해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지중해는 소용돌이치는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초기에 페니키아인의 바다에서 그리스인의 바다가 되었

고, 이후 로마인의 바다에서 이슬람의 바다로 바뀌는 곡절의 운명을 겪었다.

소용돌이치는 바다의 특성상 어느 누구에게도 쉽사리 주도권을 허하지 않았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변화무쌍한 지배권의 다툼 기저에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위대한 바다'를 쓴 지중해사의 대가 영국의 데이비드 이블라피아는 지중해 변천사를 '인간'에서 찾는다. 그는 "지중해, 지중해 유역과 섬들, 지중해를 오간 사람들의 출발지와 종착지가 되어준 항구도시"로 지중해를 한정한다.

지역을 제한하되 이곳을 무대로 활동했던 인간들의 역사는 무한대로 확장한다. 해적, 선원 등 선사시대의 인간 군상에서부터 트로이 전쟁, 카르타고와 로마의 대대전, 20세기 대중 관광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인간의 역사를 추적한다. 한마디로 지중해는 다양한 문명과 역사가 숨쉬는 '인간의 바다'라는 의미다.

저자는 종교, 교역에 관한 부분도 면밀히 들여

다본다. 카르타고의 전설, 두브로브니크의 등장, 바르바리 해적의 영향, 수에즈 운하 건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분쟁 등이 거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중세 초와 근대 상업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의 역할도 함해되어 있다.

책을 읽다보면 지금의 지중해는 어떤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지중해 연안 남유럽 국가들 사정이 녹록치 않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그리스 경제, 이웃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위기, 정정불안에 시달리는 아랍국가들, 현재로서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단초는 2만 년 문명사를 지닌 지중해라는 바다를 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폭풍이 몰려오면 이전의 것들은 죄다 휩쓸려가고 새로운 생명과 활기가 움튼다.

그것이 바다의 힘이다. 지중해는 위대한 바다다. <책과함께·4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중해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에스파냐는 1960년부터 관광지 개발에 나섰다. 카탈루냐의 코스타브라바에 있는 요레테마르 해변 풍경.

## 미정체 병원균 빠르게 진화, 대처 어떻게

**'바이러스 폭풍'**

네이션 올프 지음



되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는 탐험하고 정복하려는 인간의 욕심과 혈역을 통한 바이러스의 이동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교통혁명과 같은 과학기술 발달이 '판데믹'시대를 부채질하고 문신, 약물, 백신 등이 병원균을 옮기는 전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판데믹'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은 원대하지만 단순한 생각이다... 우리가 '판데믹'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저지하는 데 성공하여, 단어조차 사전에서 지워버리는 시대까지 꿈꾸어야 할 것이다." <김영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바이러스는 어떤 유기체보다 빠르게 진화한다. 매년 새로운 개체가 발견되며 생존 주기 또한 무척 짧다. 다른 유전자와 혼합되면 새로운 종으로 변이된다. 문제는 다른 개체로부터 물려받은 빠른 속도의 확산과 치사율이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확산성과 치사율이다.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 스탠버드 초빙교수 네이션 올프가 쓴 '바이러스 폭풍'은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병원균의 정체를 대해 주목한다.

그는 중앙아프리카의 열대우림과 동남아시아의 야생동물 시장까지 파고들어 바이러스 기원과 전염원인을 분석한다. 최고 위험등급인 '판데믹'이 어떻게 시작

## 생·길·시간·공간... 일상의 생명력을 읽다

**'우린 모두 시인으로 태어났다'**

임동혁 지음



이번 책은 그의 사유의 연장선에서 한 발 나아가 시의 역동성, 자연성, 생명성을 생생하게 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생', '길', '시간', '공간' 등으로 소주제를 나눠, 각각의 시가 지닌 존재론적 생명력과 방향성을 읽는다.

제목부터 예상치 않는다. 우린 모두 시인으로 태어났다는 말... 이 말에 부정할 이는 없을 듯하다. 누구나 시인이다. 아니 시인으로 태어났다.

임동혁 시인이 펴낸 '우린 모두 시인으로 태어났다'는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문제를 다룬다. 한국 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시인들 윤동주, 이육사, 정지용, 김현승, 황지우 등 30명의 작품을 읽고 키워드별로 풀어낸다.

임시인은 그동안 세상의 부조리와 불화에 주목하면서 타자와의 소통에 초수를 드러냈다. 서구담론에 끌려다니기보다 동양적 사유와 삶의 방식을 견지하는 시상을 전개해왔다.

텍스트를 고정불변의 명사형으로 보지 않고 동사형으로 본다. 무엇보다 그는 모든 인간과 사물 존재가 서로 땀 수 없는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나는 모든 인간들이 본래 시인으로 태어났으며, 이 지상에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말을 굳게 믿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연암서가·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라이벌' 구도로 그려낸 영화의 역사

**'만화로 보는...'**

남무성·황희연 지음



남무성의 'Jazz It Up!'(전 3권)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아무 망설임 없이 집어들 것이다. 재즈의 역사를 만화로 풀어낸 전작은 전문 지식과 만화 특유의 유쾌함이 어우러져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유익했다.

신작 '만화로 보는 영화의 역사' 역시 남무성의 장점이 고스란히 담긴 만화책이다. 여기에 영화잡지 '스크린' 편집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영화 관련 글을 써온 황희연씨가 함께 힘을 보태면서 책은 훨씬 풍성해졌다.

책은 영화의 역사를 '라이벌'이라는 구도로 풀어낸다. 갱스터와 서부극의 라이벌인 '대부'의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와 '석양의 무법자'의 세르지오 레오네, SF시대의 라이벌인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와 'E.T'의 스티븐 스피버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 지성과 뉴욕커인 마틴 스코세이지와 우디 앨런의 라이벌 구도도 재미있다. <오호하우스·1만58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모욕을 견뎌 존엄을 지켜낸 여인들

**'세 여인'**

마리 은디아이어 지음



가족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뺨속까지 이기적인 아버지로부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지만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살아갈 뿐인 남편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자신을 철저히 짓밟는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을 지켜나가는 세 여성 노라와 판타, 그리고 카디 템바 이야기.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과 페미니즘상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작가인 마리 은디아이어는 '세 여인'으

로 흑인 여성 최초 공쿠르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주목을 받았다. "살아나갈 힘을 권력의 남용이나 광기 같은 것에 기대어 얻지 않는, 건강한 힘을 지닌 강인한 여인들을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는 프랑스와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세 여성의 삶을 교차시키며 내면의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욕을 견디고 개인의 존엄을 지켜내는 세 가지 강렬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문학동네·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아이에 대한 짐작 버리고 객관적 시선 키워라

**'아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

민병직 지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음식을 먹이고, 어떤 옷을 입혀야 할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끊임없는 고민이다.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아이 교육지침서를 펴냈다. '아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는 경기도 오산 원당초등학교 민병직 교감이 다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과 노하우,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다.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짐작하에 쓴 교육서들과는 차별화해 있다.

그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반야심경' 공식상과 대비해 해법을 제시한다.

책은 부모들이 아이를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꼬집는다. 아이를 비교하고 훈계하고 때려 물을 수록 아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장을 넘길수록 아이를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짐작을 버릴 때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책 사이사이 곁들여진 시와 격언들이 인상적이다.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여러 권의 자녀 교육서와 동화집을 출간한 저자는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한다. <클리어마인드·1만5000원>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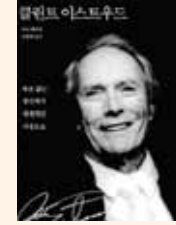
▲**상그릴라의 포로들**=티베트화의 독보적 고전으로 불리는 책, 도널드 로페즈 미국 미시간대학교 석좌교수가 그동안 티베트에 대해 가졌던 환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힌다. 티베트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으로는 진짜 티베트를 알 수 없으며, 티베트의 역사도 전쟁과 패권주의, 정교일치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인정할 때 티베트는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주장한다. <창비·3만원>



▲**박찬호**=국내 최고 야구전문기자로 손꼽히는 민훈기 기자가 '메이저리그 124승의 신화' 박찬호의 야구 인생에서 의미가 깊은 승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그 투수의 여정을 따라간 책이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첫 입성부터 2004년까지 만 14년간 박찬호의 124승 현장 대부분을 함께했다. 책은 승리한 자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온전하게 패배할 줄 아는 자의 기록이기도 하다고 평가받는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질문의 책=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은 1974년에 출간된 시인의 후기작 중 하나다. 1973년 9월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 마무리 된 이 시집은 300개가 넘는 질문들에 둘러싸여 있다. '연기는 구름과 이야기하나요?' '태양과 오렌지 사이의 왕복 거리는 얼마나 될까?' 등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엉뚱한 상상력의 시인의 끊임없는 질문이 번호로 매겨진 74편의 시에 담겨 있다. <문학동네·1만원>



▲**찰리와 마담의 추억=니체 철학을 중심**에 두고 삶의 고통과 치유의 철학에 대해 전착해 온 김정현 교수의 오랜 연구의 결실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니체 철학에서 현대 심층심리학의 학문적 뿌리를 찾는 동시에, 니체 사상을 매개로 현대 철학실천의 지형도를 살펴보고, 철학상담치료·임상철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책세상·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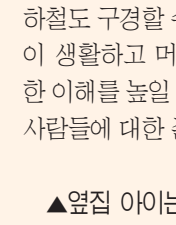
▲**때루때루**='망태 할아 버지가 온다' 박연철 작가의 신작으로, 꼭두각시놀이의 멋과 매력에 담긴 그림책이다. 작가는 꼭두의 색과 표정을 잘 드러내기 위해 붉은 소나무를 구해 반입체 목각 인형을 탄생시켰다. 천연 염색을 이용해 배경을 만들고, 재봉 작업을 더해 캐릭터의 특징을 살렸다. 여기에 의상을 섞어 재미와 흥을 돋우는 재담 등 꼭두각시놀이의 특징을 잘 잡아냈다. <시공주니어·1만1500원>



▲**도시야기**=히오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어린 아이의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시선으로 풀어냈다. 보는 이 모두에게 읽는 내내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스콜라·9800원>



▲**짧은 단어로 쉽게 배우는 도시야기**=사람들이 모여 큰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 '도시'. 거리의 많은 가게와 병원, 약국, 우체국, 백화점, 극장, 그리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지하철도 구경할 수 있다. 책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생활하고 머무는지 살펴보면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웃과 인접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도 쌓여간다. <블루웍스·1만1000원>



▲**옆집 아이는 로봇**=옆집 아이와 비교당하는 아이의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림책이다. 밥 먹는 것도, 정리정돈 하는 것도, 공부 잘 하는 것도... 엄마 말만 들어보면 옆집 아이는 마치 무엇이든 천천히 해 내는 만능 로봇인 것만 같다. 아이는 자신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로봇이 되고 싶어한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